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 “아시아경마회의 통해 경마선진국 진입 한발짝 전진”

말 육성·복지정책 땀낸 한국경마...이젠 세계로!

코리아던비 통해 말 산업 소개
약 50억원 경제유발 효과 기대

아시아경마회의(ARC, Asian Racing Conference)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국경마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7회 ARC를 주관했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홍콩 등 41개국에서 1000명에 달하는 국내외 인사가 참석했다. 행사기간 동안 ‘혁신 협력 변화’를 주제로 발매, 경마문화, 도핑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10개의 분과회의와 12개의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한국 회의는 인도에서 열렸던 제36회 ARC의 2배가 넘는 인사가 방문했다. 윈프리트 아시아경마연맹 의장, 필린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디어 CEO 등 해외 유명 인사가 주요 연사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성공적인 ARC 개최...글로벌시장 위상 강화
ARC는 환태평양 경마 시행국간의 정보 교류, 상호협력 도모로 경마발전을 위해 아시아경마연맹(ARF, Asian Racing Feder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이 14일 열린 제37회 아시아경마회의의 오프닝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ation)이 2년마다 여는 경마 회의다. 한국은 1980년(제15회)과 2005년(제30회)에 개최한 바 있다.

ARC 개최는 세계에 한국경마의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해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다진 것으로 평가 받는다. ARC 취재로 한국을 방문한 말산업 전문 저널 슬릭픽스(SLICKPIX) 대표이사 로스

는 “e스포츠 강국인 한국의 특징을 살린 발표와 코리아던비(GI)와 같은 주요 경마대회 관람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구성한 것이 ARC가 성공한 주요 요소”라고 말했다.

상승세 탄 ‘클린업조이’, 최강마 ‘청담도끼’에 설욕할까

27일 서울 제9경주 YTN배 2000m
지난 4월 맞대결선 ‘청담도끼’ 승리

청담도끼 vs 클린업조이. 5월27일 렛츠런파크 서울 제9경주로 열리는 제18회 YTN배(L)에서 최고 경주마의 신구대결이 다시 한번 펼쳐진다. 2000m 경주로 장거리 최강마를 뽑는 스테이어(Stayer) 시리즈의 두 번째 대회다. 첫 판문이었던 4월 헤럴드경제배에서는 청담도끼가 지난해 스테이어 시리즈 최우수마 클린업조이를 2와1/2마신(1마신=약 2.4m) 차로 여유 있게 꺾으며 새로운 장거리 제왕의 탄생을 예고했다.

●청담도끼(거, 4세, 미국, R126, 박종곤 조교사, 승률 64.3%, 복승률 85.7%)

랫츠런파크 서울 최고 레이팅인 126을 보유한 경주마로, 서울에서는 적수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년 말 KRA컵 클래식에서 당시 서울 최고마로 꼽히던 클린업조이를 13마신 차의 큰 차이로 꺾어 주목 받았다. YTN배(L) 디펜딩 챔피언 ‘클린업조이’를 또다시 꺾고 스테이어 시리즈 2연승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클린업조이(거, 7세, 미국, R124, 송문길 조교사, 승률 50.0%, 복승률 76.7%)

작년 말 컨디션 난조를 보였지만 완벽한

회복세에 들어섰다. 올해 출전한 3번의 경주에서 모두 상위권 성적을 받고 있다. 4월 헤럴드경제배에서 청담도끼에게 패하며 통산전적이 4전 4패다. 설욕에 성공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문학치프(수, 3세, 미국, R84, 김순근 조교사, 승률 62.5%, 복승률 62.5%)

출전마 중 가장 어린 3세지만 510kg가 넘는 당당한 체구를 자랑한다. 데뷔전을 제외하고 7번의 출전에서 3위 밖으로 성적이 떨어진 적 없다. 2000m 경험은 없지만 최근 2번의 경주에서 1800m 장거리에 도전하여 우승 한 번, 3위 한 번으로 성적이 좋다.

●삼로커(수, 5세, 미국, R112, 송문길 조교사, 승률 23.1%, 복승률 42.3%)

작년 헤럴드경제배(L) 3위, YTN(L) 준우승하며 서울의 장거리 강자로 불렸다. 연이어 중하위권 성적을 받는 등 기세가 주춤하다. 대상경주에 5번 도전했지만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첫 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플레이시스트고(거, 4세, 미국, R110, 하재홍 조교사, 승률 36.8%, 복승률 36.8%)

현재 3연승 중으로 성장세가 무섭다. 작년 하반기부터 9번의 경주에서 순위상금을 놓친 적이 딱 한 번이다. 2000m는 첫 출전이지만 4월 1900m에서 우승 유력마 다이 나믹즐주를 8마신이라는 큰 차이로 따돌리며 우승을 차지했다.

정용운 기자

렛츠런파크 서울, 6월 시행계획 발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이 6월 경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6월2일부터 7월1일까지 5주간 107개 경주를 시행한다. 토요일 경마는 서울시행 10개 경주와 제주 중계 6개 경주로 16개 경주가 운영되고 일요일에는 서울시행 11개, 부경 중계 6개로 총 17개 경주가 발매된다. 6월 동안 7개의 대상·특별 경주가 열린다. 6월3일에는 독성배(GⅡ)가, 17일에는 상급 6억원이 걸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GⅡ)가 열린다. 토요일 모두 첫 경주 출발 시각은 오전 10시 45분, 마지막 경주 출발 시각은 오후 6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삼성, 두산 잡고 이번 연출” 52%

야구토토 스페셜 45회차 중간 집계
두산 4~5점-삼성 6~7점이 1순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25일 열리는 2018시즌 한국프로야구(KBO) 프로야구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45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참가자의 51.98%가 두산-삼성(1경기)전에서 원정팀 삼성의 우세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홈팀 두산의 승리는 33.91%를 기록했고, 양팀의 같은 점수대 예상은 14.10%로 가장 낮았다. 최종 점수대 예상에서는 두산(4~5점)-삼성(6~7점)이 5.80%로 1순위를 차지했고, 두산(2~3점)-삼성(6~7점)이 5.27%, 두산(2~3점)-삼성(8~9점)이 5.15%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리그 9위 삼성(21승28패)이 1위 두산(30승17패)과 맞붙기 위해 잡심 원정길을 떠난다. 최근 삼성은 넥센과 롯데를 상대로 3연승을 달성해 꼴찌에서 탈출했다. 반대로 두산은 한화에 2연패를 기록했지만, 아직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은 올해 두산만 만나면 유독 힘을 쓰지 못했다. 양팀의 상대전적에서도 삼성은

1승4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삼성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방에서 펼쳐진 3연전에서도 모두 패했다.

이렇듯 삼성이 힘을 쓰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장타력 부진에 있었다. 팀타율은 0.285로 전체 5위(22일 기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OPS(출루율+장타율)는 0.770으로 리그 전체 8위를 기록했다. 10개 구단 가운데 팀홈런도 최하위에 머물렀다. 팀내 타자 중 홈런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다린 러프가 유일했다.

그러나 최근 삼성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삼성은 올 시즌 커리어 최고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원석과 다린 러프,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강민호로 구성된 중심타선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이번 시즌 두산과의 상대전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이지만 중심타선의 장타력이 폭발한다면 치열한 접전 승부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한 판이다.

SK-한화(2경기)전에서는 원정팀 한화 승리 예상이 45.63%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SK 승리 예상(39.24%)과 양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15.12%)이 그 뒤를 이었다. 최종 점수대 예측에서는 SK(4~5점)-한화(2~3점)가 4.99%로 가장 많은 득표



를 얻었다. 이어 넥센-롯데(3경기)전에서는 홈팀 넥센 승리 예상(45.61%), 롯데 승리 예상(39.56%), 양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14.79%)의 순으로 투표율이 집계됐다. 양팀의 최종 점수대 예측에서는 넥센(6~7점)-롯데(4~5점)가 5.5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야구토토 스페셜 45회차는 25일 오후 6시20분 발매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최종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베트맨, 28일부터 구매한다 5만원으로 축소

스포츠도토 판매점은 기존과 동일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의 회차당 구매한도가 5만원으로 축소된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도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정부가 지난해에 발표한 합법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에 따라, 28일부터 베트맨의 회차당 1인 구매한도를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50%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KBO리그·MLB 대상 ‘야구토토 승1패 9회차’ 발행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케이토토는 29일 벌어지는 한국프로야구(KBO) 5경기와 미국프로야구(MLB) 9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야구토토 승1패 9회차 게임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KBO에서는 29일 오후 6시30분 시작하는 두산-SK(1경기)전부터, 한화-NC(2경기), 삼성-KT(3경기), KIA-넥센(4경기), 롯데-LG(5경기)전까지 모두 5경기가 야구팬을 찾아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통해,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베트맨에서는 1일 최대 6개 회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차당 5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단 전국 6500여 개의 스포츠도토 판매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개 회차당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MLB에서는 애틀랜타-뉴욕 메츠(1경기)전을 시작으로, 디트로이트-LA 에인절스(2경기), 피츠버그-시카고 컵스(3경기), 밀워키-세인트루이스(4경기), 오클랜드-애틀랜타(5경기), 애리조나-신시내티(6경기), 샌디에이고-마이애미(7경기), 시애틀-텍사스(8경기), LA 다저스-필라델피아(9경기)전까지 모두 9경기가 선정됐다.

한편, 야구토토 승1패 24회차 게임은 28일 밤 9시 50분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경기가 종료된 후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